

## 문명의 전환점에는 언제나 '식량'이 있었다



### '식량의 세계사' 톰 스탠디지 지음

전성 중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일까? 청동검, 화살, 대포, 기관총, 탱크, 원자폭탄 등 인류가 발명한 수많은 무기들은 엄청난 수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이것'에 비하면 이들 무기의 파괴력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4세기 로마의 군사 저술가 베게티우스 말에는 '이것'의 해답이 담겨있다. 그는 "굶주림은 전투보다 더 자주 군대를 물리치며, 배고픔은 검보다 더 잔인무도 하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이자 과학 칼럼니스트인 톰 스탠디지의 신간 '식량의 세계사'에는 문명이 뒤바뀌는 순간에는 언제나 '식량'이 있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농사가 인류에게 '최악의 발명'이 됐다고 주장한다. 인류가 수렵·채집을 하던 시기에는 주 2일만 일을 했지만 식량이 되는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주 7일 노동하게 됐다.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식량'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고대 인류의 평균 키가 10cm 이상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 수렵·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 문화에 정착했으나 신장이 오히려 작아졌다는 것이다.

그리스와 터키에서 출토된 뼈 조각을 분석해 시대별로 인류의 평균 키를 추정한 결과 빙하기 끝무렵인 1만4000년 전에는 남성 신장이 175cm였으나 농사가 도입된 후인 기원전 3천년에는 160cm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평균 신장도 같은 시기 165cm에서 152cm로 작아졌다.

신장이 줄어든 것은 영양의 불균형 때문이다. 과거 인류는 수렵·채집으로 곡물은 물론 75종의 야생 식물을 다양하게 섭취했지만 농작을 시작하면서 곡물에만 의존하게 됐다.

또 구루병, 괴혈병, 빈혈 같은 결핍성 질환도 농사가 시작되면서 등장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전쟁에서 식량은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한다. 식량 배급을 차단해 적군을 무너뜨리는 전술은 중국의 '삼국지' 속에 즐겨 등장하는 장면이다. 또 이 전술은 현대전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프랑스 요리사인 니콜라 아페르는 지난 1795년 보충 식품 개발에 착수해 프랑스 해군에게 병에 든 소고기 수프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이는 통조림



지난해 여름 진도의 한 논에서 '식량작물 기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전남도 관계자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개발의 시초가 됐다.

보릿고개를 겪던 한국이 식량 생산량을 늘리며 산업화에 성공했듯, 화학 비료를 도입해 농작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산업화로 직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저자는 단순히 농업에 대한 비난만 늘어 놓지는 않는다. 환경오염 논란이 거센 만큼 환경 보존 농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비료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분량을 재서 추가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특정한 종류의 딱정벌레와 거미를 이용해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또 폴리에틸렌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네 겹짜리 화석 봉투 안에 종자를 넣은 다음, 세 군데 지하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인 세계 종자보관소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웅진지식하우스·1만6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인류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말하다

### '바다의 편지' 최인훈 지음



각각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데 대해서도 들려준다.

최인훈의 작품을 문학비평가 가 아닌 역사학 전공 학자의 분석도 곁들였다. 고려대에서 역사학 강의를 하는 오인영씨가 최인훈의 사상이 어떤 점에서 독창적인지를 소개하고, 그 깊이를 짚어내는 글을 함께 실었다.

오씨는 "최인훈은 이 시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한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사상가이며, 그의 지적 사유가 자아내는 공명을 굳이 문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둬둘 이유도 필요 없다"고 설명한다.

또 최인훈이 지난 2003년 19년 만에 발표한 단편소설 '바다의 편지'도 수록됐다. <삼인·2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가의 철학과 사상을 먼저 알면, 그의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내 대표 소설가 중 한 명인 '광장'의 작가 최인훈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바다의 편지'가 나왔다.

'인류 문명에 대한 사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최인훈의 글 가운데 그의 사상을 살필 수 있는 글을 가려 묶었다. 인류 문명의 역사적 진화 과정과 21세기 주요 문제, 한국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최인훈의 사유와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수록됐다.

또 작가가 그간 발표한 산문과 평문, 대담문, 작가의 사상이 두드러지게 담긴 소설 속 발췌문도 묶었다. 최인훈이 직접 밝힌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문학과 예술의 성격과 역할과 삶에 대해 어떤 방향

## 두 바퀴로 1600km, 30일 동안 만난 일본건축

### '자전거 건축여행' 차현호 지음



나오시마의 지중미술관, 자유롭게 공간을 산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21세기 미술관, 산 속에 꼭꼭 숨은 나카무라의 키스 해링 미술관, 숲같은 건물 에크로스 후쿠오카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일본 정원의 정수를 보여주는 교토의 다이도쿠지, 조용한 도시 마쓰야마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마쓰야마, 마쓰모토의 동네 목욕탕 등 일본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축물도 소개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도시 구석구석을 다닌 터라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에피소드와 소소한 볼거리를 맛깔스런 글쓰기로 풀어내 '여행기'로서의 매력도 만끽할 수 있어 재미있게 읽힌다. <엘리스·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심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건축물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도심 랜드마크로의 기능을 하고, 도심 디자인을 완수하는 건축물은 이제 도시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건축가 차현호씨가 펴낸 '자전거 건축여행'은 세상을 찬찬히 둘러다 볼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건축물과 그 건축물을 만든 건축가들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눈 책이다. 저자는 30일 동안 일본 후쿠오카에서 도쿄까지 1600km를 달려 다양한 건축물들을 만났다.

책에서는 노출 콘크리트의 미학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는 안도 다다오의 구마모토 협립 장식교본관과

## 방황하는 청춘에 대한 인생 해법

###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스님 지음



욕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뤄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는 젊은이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스님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해'라고 장사꾼처럼 계산하고 대가를 구하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지는 사람은 내 사랑을 받는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다"고 조언한다. <지식채널·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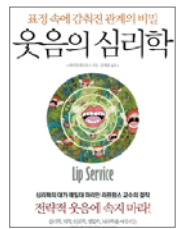
안철수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이 방황하는 청춘에 인생 해법을 제시해준 '방황해도 괜찮아'를 냈다.

책을 통해 스님은 인생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한다.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 '나는 왜 넘어졌을까, 왜 안 될까?'라며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이 곧 좌절이며 절망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좌절과 절망은 연습하지 않고 저절로 능숙해지기를 바라는

## 웃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본다

### '웃음의 심리학...' 마리안 라프랑스 지음



보고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웃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다. 책은 이성을 유혹하는 남성의 웃음, 선거에 미치는 웃음의 효과, 거짓말쟁이와 사이코패스의 웃음, 만성적인 웃음과 사회적 분노, 나라마다 다른 웃음에 대한 해석 등 웃음이 있는 삶의 순간들을 포착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북스·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누군가 나를 보고 웃는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심이 묻어나는 웃음일까?

웃음의 매력에 숨겨진 실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친 책 '웃음의 심리학-야해'라고 장사꾼처럼 계산하고 대가 표정 속에 감춰진 관계의 비밀'이 나왔다.

심리학의 대가로 꼽히는 예일대 심리학과 마리안 라프랑스 교수가 쓴 이 책은 심리학, 의학, 인류학, 생물학, 뇌과학을 아우르는 인감심리학

## 말·책·뉴스... 일상 속 시선이 고스란히

###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이시영 지음



가 법복을 입고 안경을 쓴 가름한 얼굴의 판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마디로 쫓겨났습니다' ('최후진술' 중)

지하신문 '고발'과 관련, 1973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받았던 김남주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시에 녹여냈다.

또 다른 시 '고급 사료'에서는 TV 뉴스에 등장한 농민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많이 먹고 가라고, 사료도 많이 줘요, 고급 사료를)를 그대로 차용해 구제역으로 소를 살처분해야 하는 축산 농가의 아픔을 전해준다.

구제 출신 중견시인 이시영씨가 열두 번째 시집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를 출간했다. 짧고 강렬한 시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이번 시집에 지난 5년 동안 썼던 시편을 담았다.

일상에서 막 건진 시어들을 가공 없이 펼쳐 놓은 시들이 눈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의 말이나 책, 기사 등을 가공이나 감정의 이입 없이 그대로 시어로 사용하는 이시영 시의 특징이 이번 시집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판사가 최후진술을 하라고 하자 피고석에서 수갑을 찬 채 엉거주춤 일어난 뉴스그레한 대학생 김남주

## 신간

▲아주 오래된 북극= '시턴 동물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동물학자 어니스트 토폴슨 시턴이 북극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소개한 책. 100년 전 문명의 손이 닿지 않던 북극에 사람과 자원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한방을 노리고 흘러든 사람들은 이곳에 철길을 놓아 야생 동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또 온갖 동식물이 찬란한 생명을 꽃피우는 모습을 야생 그대로 보여준다. <씨네21북스·1만5000원>



▲세계사 로드무비= 독일 신에 사학자 로엘트베크가 들려주는 세계사 이야기. 작가의 풍부한 인문적 소양으로 버무린 관능적인 역사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문자, 문화, 종교, 예술, 이데올로기 등의 14개의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고대 이집트에서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사실, 사건, 인물, 이론을 중심으로 담았다. 또 종교, 테러, 전쟁, 스포츠, 예술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당시의 시대적 관점으로 평가했다. <지식갤러리·1만4000원>

▲정도전 조선최고의 사상법= 조선건국의 설계자, 정도전을 집중 조명한 책.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개국한 개국공신이었고 조선왕조 500년의 국가 경영체계를 확립한 정치 사상가였지만, 국가의 운영방향을 둘러싸고 이방원과 갈등을 빚다가 역적으로 몰려 살해당한다. 정도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인카운터·1만6000원>



▲따뜻한 경쟁= 팽창형 연합뉴스 제네바 특파원이 스위스를 겨울삼아 한국의 현주소를 돋보이게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파헤친 책. 저자는 2009년부터 제네바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취재 현장을 발로 뚫은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승자와 패자가 공동체 발전에 동등하게 기여하는 스위스 특유의 공존 방식을 소개한다. 스위스는 사회통합 프로젝트에 따라 정신지체 젊은이를 고용하는 농가에 지원금이 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해문집·1만3900원>



▲원자력의 거짓말= 일본 교토대학 원자로 실험소 조교 고이데 히로야키가 들려주는 원자력 이야기.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상을 밝히고, 피폭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다. 저자의 강연과 인터뷰를 재구성한 후, 원전에 관한 최신정보와 보충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원자력에 미래는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녹색평론사·1만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식탁=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찾아가는 책. 다 빈치는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했고, 밤을 새워가며 해부에 열중하기도 했다. 악기도 능숙하게 다루고 작곡도 했으며, 상당히 세련된 멋쟁이기도 했다. 그의 수첩에는 그의 관심사와 설계도, 짧은 단상들뿐 아니라 '장보기 목록'이나 '지출기록부'와 같은 그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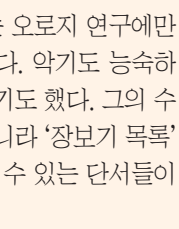


▲시그마북스·1만4000원

▲원자력의 거짓말= 일본 교토대학 원자로 실험소 조교 고이데 히로야키가 들려주는 원자력 이야기.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상을 밝히고, 피폭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다. 저자의 강연과 인터뷰를 재구성한 후, 원전에 관한 최신정보와 보충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원자력에 미래는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녹색평론사·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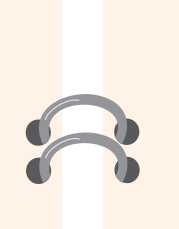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식탁=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찾아가는 책. 다 빈치는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했고, 밤을 새워가며 해부에 열중하기도 했다. 악기도 능숙하게 다루고 작곡도 했으며, 상당히 세련된 멋쟁이기도 했다. 그의 수첩에는 그의 관심사와 설계도, 짧은 단상들뿐 아니라 '장보기 목록'이나 '지출기록부'와 같은 그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원자력의 거짓말= 일본 교토대학 원자로 실험소 조교 고이데 히로야키가 들려주는 원자력 이야기.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상을 밝히고, 피폭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다. 저자의 강연과 인터뷰를 재구성한 후, 원전에 관한 최신정보와 보충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원자력에 미래는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녹색평론사·1만원>

▲원자력의 거짓말= 일본 교토대학 원자로 실험소 조교 고이데 히로야키가 들려주는 원자력 이야기.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상을 밝히고, 피폭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다. 저자의 강연과 인터뷰를 재구성한 후, 원전에 관한 최신정보와 보충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원자력에 미래는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녹색평론사·1만원>



▲아기돼지 꾸이= 목소리과 생김새가 다른 돼지와 달라 놀림을 받는 줄무늬 아기돼지 꾸이가 펼치는 모험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동화작가 김동영의 작품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함께 읽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제작됐다. <BF북스·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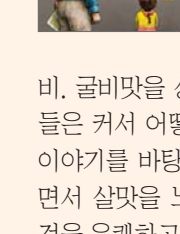
▲수달이 오면 날= 로 드킬로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 보호 기관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으로 석관화로 제작했다. '새가 되고 싶어'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시회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한병호의 작품으로 저자는 강원도 화천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수달을 직접 취재, 책으로 펴냈다. <시공주니어·1만1000원>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형준이를 포함한 2학년 6반 아이들은 담임인 고길희 선생님이 사실은 꼬기리라는 걸 알고 신이 나 가족에게 말하지만 가족들은 좀처럼 믿지 않는다. 고길희 선생님은 공부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건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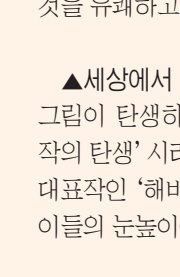
▲수달이 오면 날= 로 드킬로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 보호 기관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으로 석관화로 제작했다. '새가 되고 싶어'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시회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한병호의 작품으로 저자는 강원도 화천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수달을 직접 취재, 책으로 펴냈다. <시공주니어·1만1000원>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형준이를 포함한 2학년 6반 아이들은 담임인 고길희 선생님이 사실은 꼬기리라는 걸 알고 신이 나 가족에게 말하지만 가족들은 좀처럼 믿지 않는다. 고길희 선생님은 공부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건강하



▲수달이 오면 날= 로 드킬로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 보호 기관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으로 석관화로 제작했다. '새가 되고 싶어'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시회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한병호의 작품으로 저자는 강원도 화천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수달을 직접 취재, 책으로 펴냈다. <시공주니어·1만1000원>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형준이를 포함한 2학년 6반 아이들은 담임인 고길희 선생님이 사실은 꼬기리라는 걸 알고 신이 나 가족에게 말하지만 가족들은 좀처럼 믿지 않는다. 고길희 선생님은 공부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건강하



▲수달이 오면 날= 로 드킬로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 보호 기관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으로 석관화로 제작했다. '새가 되고 싶어'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시회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한병호의 작품으로 저자는 강원도 화천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수달을 직접 취재, 책으로 펴냈다. <시공주니어·1만1000원>

## 어린이 책꽂이

▲아기돼지 꾸이= 목소리과 생김새가 다른 돼지와 달라 놀림을 받는 줄무늬 아기돼지 꾸이가 펼치는 모험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동화작가 김동영의 작품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함께 읽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제작됐다. <BF북스·9500원>

▲수달이 오면 날= 로 드킬로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 보호 기관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으로 석관화로 제작했다. '새가 되고 싶어'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시회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한병호의 작품으로 저자는 강원도 화천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수달을 직접 취재, 책으로 펴냈다. <시공주니어·1만1000원>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형준이를 포함한 2학년 6반 아이들은 담임인 고길희 선생님이 사실은 꼬기리라는 걸 알고 신이 나 가족에게 말하지만 가족들은 좀처럼 믿지 않는다. 고길희 선생님은 공부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건강하

▲수달이 오면 날= 로 드킬로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 보호 기관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으로 석관화로 제작했다. '새가 되고 싶어'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시회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한병호의 작품으로 저자는 강원도 화천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수달을 직접 취재, 책으로 펴냈다. <시공주니어·1만1000원>